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성공 개최 첫발

공동위원장 YC-TEC 박수관 회장 임명, 섬 주민과 함께하는 세레머니 '눈길'

1처 2본부 1실 8부 사무처…2024년 1월부터 국제행사 세부실행 본격 추진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8일 오후 여수시문화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성공개최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처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돼 행사장 조성·전시 연출·행사 운영·홍보·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 국제행사의 세부 실행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YC-TEC 박수관 회장 등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임원진,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출범사와 함께 섬 박람회의 대외를 총괄하고 위상을 제고할 민간 조직위원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와 정기명 시장과 함께 공동 조직위원장에는 여수 섬 출향인사를 대표하고 지역 사회에 꾸준한 봉사로 귀감이 되는 ㈜YC-TEC 박수관 회장이 임명됐다. 세 명은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헌신할 예정이다.

이어 섬 박람회 성공 개최 세리머니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는 권역별 여수의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섬과 섬을 잇는 의식을 통해 여수 섬 주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라는 점을 강력히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는 중앙정부와 전남도, 민관이 합심해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된 만큼 연내까지 기구 직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24년 1월부터는 공무원 파견을 통한 국제행사 세부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출범사를 통해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 성공을 위해 조직위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섬박람회는 여수엑스포에 이어 여수의 저력을 보여주고 미래 비전을 다지는 멋진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남도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출범사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해 우리나라 섬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2년 9개월간 세부 실행계획을 탄탄히 준비해 여수가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 가능한 섬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 진모지구 주 행사장과 여수의 365개 섬에서 열린다.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8일 오후 여수시문화홀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박수관 공동위원장 등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임원진,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봇재 3층 그린다향 카페 '비움'으로 오늘 재개장

숲 콘셉트 새로운 문화공간 변신

보성군은 11일 복합 문화 공간인 '봇재'의 3층 보성생태체험전시관을 새로운 문화공간인 그린다향 카페 '비움'으로 바꿔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봇재 3층은 보성생태체험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및 전시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운영이 잠정 중단됐었다.

이에 보성군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새 단장(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절감한 8백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그린다향 카페 '비움'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그린다향 카페 '비움'은 타 카페와는 차별화된 대형 '숲' 콘셉트로 울창한 숲에 있는 듯한 모습을 갖췄다.

3층 비움 운영 시간은 10:00 ~ 18:00

이며 총 41석이 비치돼 있다. 2층 그린다향 운영시간은 10:00 ~ 20:00(동절기 2023.12.11.~2024.2.18.)까지이며 116석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산림청, 새로운 정원 콘텐츠 컨트롤타워 돼야"

노관규 순천시장 산림청서 특별강연…정원 이후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관규 순천시장이 6일 새로운 정원 콘텐츠를 만드는 컨트롤타워로서 산림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노 시장은 '제14회 산림 소통의 시간'에 초청돼 산림청 직원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산림 소통의 시간'은 산림 관련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정책강의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노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함께 애써준 산림청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원박람회 개최 과정과 성공 노하우, 향후 비전 등을 공유했다.

노 시장은 "정원은 대단히 전략적인 분야"라며, "인력과 재원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철학적 눈높이가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원에 대한 개념 정의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원박람회를 최초로 기획할 때, 정부 주요 부처 모두가 난색을 표했지만, 당시 산림청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순천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산림청에 감사를 표했다.

노 시장은 "정원뿐만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을 보는 눈과 상상력"이라며 "기존의 정원에 만족하고 있기보다 획기적인 사고 전환으로 이전에 없던 정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순천이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후에는 산림청 직원들의 열띤 질의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전역에 정원 열풍을 불러온 선도도시로서 조언을 청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방도시들이 무분별하게 대도시를 모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기에 고유의 매력을 경쟁력으로 삼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원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비전과 관련된 질문은 "재정 투입을 통해 정원을 지속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순천만과 정원 등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가치는 지키되, 애니메이션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적 요소를 도입해 정원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순천이 준비는 변화를 소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2024년산 고품질 물김 본격 출하…풍작 기원

고흥군은 지난 7일 도화면 발포위판장에서 2024년산 생김 위판장 개장식을 열고 올해 청정 고흥 김의 본격적인 생산을 알렸다.

고흥산 물김 생산을 위해 올해 고흥 청정해역 10,338ha에 103,380책이 시설됐다. 고흥산 물김은 지난달 23일 도화면 발포위판장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고, 위판가격은 120kg당 최저 100,000원에서 최고 21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이상기후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분망과 채취가 늦어지면서 물김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지만, 작년보다 위판량 및 위판 금액이 상향 거래되면서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공영민 군수는 2024년산 물김 위판장 개장식이 열린 도화면 발포위판장을 찾아 김 양식어업인을 격려하고 고소득을 기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